

장성 생활인구 6.8% 늘었다…전국 평균 3배

1분기 68만4534명…전남광주 군 평균도 웃돌아 방문객 소비·숙박 연계…채류형 관광 확대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의 생활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1분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군은 늘어난 방문 수요를 지역 내 소비와 채류형 관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장성군 생활인구는 68만45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64만1147명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규모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1분기 생활인구 평균 증가율은 2.6%로, 장성군은 전국 평균보다 약 2.6배 높은 증가율을 기록

했다. 이는 전남광주지역 16개 군 평균 증가율 2.9%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관광·휴양·근무·통학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제 유동인구와 소비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군의 생활인구 증가는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수요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문화예술관을 찾은 내장객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방문객은 광주와 나주를 비롯해 전주·정읍·담양·고창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유입됐으며, 특히 휴일과 오후 시간대 방문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방문객 1인당 카드 사용액은 1만 7000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체류일수는 4.5일, 평균 숙박일수는 5.9일로 나타났다.

소비 행태를 보면 운송·교통 분야가 전 체 카드 사용액의 30~40%를 차지했고,

음식점 비중도 22~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성을 찾는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교통과 음식점 등에 집중된 소비를 관광·숙박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보여준다.

특히 휴일과 오후에 방문객이 몰리는 특성을 고려하면 주말장이나 당일형 관광·소비 콘텐츠를 마련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1만 가구가 유입될 수 있는 초제도 있다.

최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신축 아파트단지 2곳의 점등식이 열렸으며, 이곳 총 336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1만명(읍 규모)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성군

인구는 4만4026명이다.

이에 군은 생활인구 증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나들이 중심의 방문 수요를 숙박을 포함한 채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숙박시설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특화음식 개발, 주말형 소비 콘텐츠 등 방문객이 지역에서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는 생활인구 증가가 단순한 방문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음식과 관광,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연결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근 나주배원예농협 부덕유통센터에서 열린 ‘2026년산 나주배 대미 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광양매화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자리매김’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 11위…“차별화 콘텐츠 지속 발굴” 바가지요금 근절·일회용 사용 간소화 등 ‘3무 축제’ 성과

광양대표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 조사에서 전국 11위에 올라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 위상을 입증했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따르면 아놀자리서치와 미국 퍼듀대학교 CHRIBA 연구소, 경희대학교 H&T 에널리틱스센터 공동으로 전국 1452개 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축제 매력

도 지수 조사에서 광양매화축제는 종합 점수 7.62점을 받아 전체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광양매화축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축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시는 광양매화축제가 10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예산으로 콘텐츠의 완성도와 방문객 경험의 가치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아 수십억원이 투입된 다른 지역 대형 축제들과 나란히 최상위권에 오른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또 성공적인 매화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치 않는 축제제, 바가지요금 근절, 일회용 사용 간소화 등 ‘3무(無) 축제’를 만드는 것도 큰 성과로 분석했다.

광양매화축제는 남녘의 봄소식을 맨 먼저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로 선진강과 백운산 자락을 따라 펼쳐지는 33만㎡의 매화군락과 빼어난 자연경관, 지역문화와 미식,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시킨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양매화축제는 올해 전남도 대표축제에 4년 연속 선정 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축제 콘텐츠를 한층 고도화하고 채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봄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번 결과는 광양매화축제의 매력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명품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고흥 거금대교 ‘특별한 밤’ 향한 첫걸음 군, 야간경관 조성사업 40억 투입…관광명소화 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거금대교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선보이기 위해 ‘거금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거금대교는 수려한 다도해와 해안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흥의 대표 교량이다. 이번 사업은 거금대교의 웅장한 구조미와 주변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조명으로 특색 있게 연출해 주야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4년 12월 착공했으며, 최근 공사를 마쳤다. 이번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낮에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고흥의 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연출은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지 30분 간격으로 총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절도해전승전탑 공원에서 음악과 함께 거금대교의 화려한 빛의 향연을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 구조인 거금대교의 하부 보도에는 2개 구간에 각각 6개씩 총 12개의 고보조명을 설치했다. 고보조명은 누리호 발사, 고흥의 대표 관광지, 특산물과 음식, 축제, 은하수 등 6가지 주제로 구성했으며, ‘우주도시 고흥’의 미래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빛으로 표현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담양, 농업예산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12개 읍면 순화·농업단체 간담회…정책·예산 의견 수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민선 9기 임기 내 농업예산을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농업인과 주요 농업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담양군 농업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농업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득 안정, 농촌 인력 부족 해소, 청년농·후계농 정착 지원,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등 모두 2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군은 지난 19일 농업회의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어 읍·면 순회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농업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단체와의 소통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담양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0일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와 담양군여성농민회를 각각 만나 단체별 현안과 정책 수요를 청취했다.

군은 읍·면 순회간담회와 농업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과 주요 농업사업에 반영하고, 임기 내 농업예산을 1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종원 군수는 “농업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임기 내 농업예산 1500억 원이라는 목표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자동차 직접 만들어 영광서 달린다 군, 27~30일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과 (사)한국자동차공학회는 전국 대학생들의 창의적 도전 무대인 ‘2026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영광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45개 대학, 60개 팀, 20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며, 지난해 53개 팀, 1800여명이 참가했던 대회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출전 차량은 국제 규정에 맞춘 포뮬러 경주차로, 엔진(710cc 이하) 또는 전기모터(80kW 이하)를 장착해 최고 시속 15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차량 성능검사를 시작으로 가속·스키드패드·오토크로스·점카나·내구레이싱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포뮬러 경진대회가 시범 운영된다. 자율주행 포뮬러 부문에는 1개 팀, EV 자율주행 부문에는 2개 팀이 참가해 인공지능(AI), 센서 기술,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기회를 갖는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자작자동차 경진대회는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집약된 행사”라며 “이 대회를 통해 영광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청년 기술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